



## ‘히로시마 노트’ ‘오키나와 노트’

오에 겐자부로 지음

# 반핵과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東京) 한복판인 요요기 공원에서 열린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최대의 반(反) 원전 집회에는 시민 17만명이 참여, 원전 반대를 호소했다. 올해 77세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도 노구를 이끌고 이날 집회에서 원전 반대를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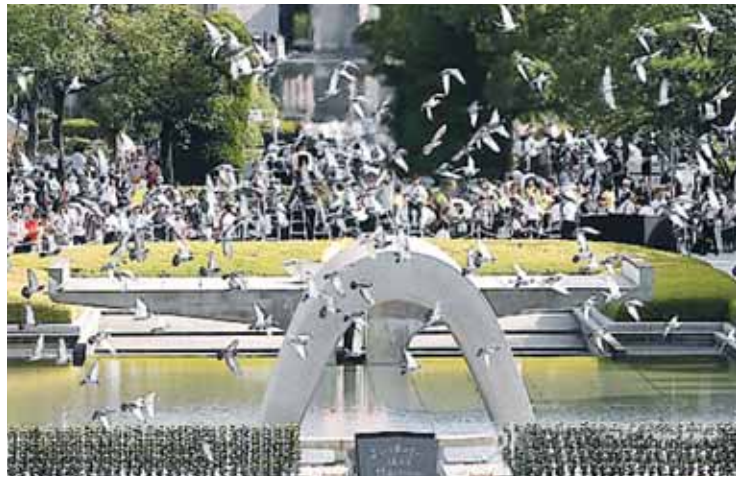
오에 겐자부로는 양심적이고 실천적 지식인으로도 유명하다. 천황제와 핵문제, 국가주의와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등 일본의 패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해 우익집단의 테러 위협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가 최근 내놓은 ‘히로시마 노트’, ‘오키나와 노트’는 이런 점에서 그의 양심을 평생 지탱해준 목적의 기록이기도 하다.

‘히로시마 노트’는 그가 1965년 전후로 히로시마를 찾아 피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고통을 지켜보면서 기록한 르포르타주다. 2년 여 동안 잡지에 연재된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원자폭탄 투하로 종전(終戰)은 닫혀졌

지만 히로시마의 전쟁은 시작됐다는 저자의 시각이 엿보인다. 원자폭탄으로 역사 이래 가장 가혹한 날을 만났던 히로시마 지역민들의 체험담과 절규를 담담하지만,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

‘더이상 전쟁은 싫다. 이것은 히로시마 원폭 체험자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비통한 절규다. 글이나 말로는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평화 욕구의 진정된 절규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잔혹한 체험을 이 세상 누구도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것을 세계를 향해 호소한다. 더 이상 또 다른 히로시마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 모어 히로시마!’라는 표어는 오늘날 국제 정세에서 가장 높이 내걸어야 한다’고 쓴 히로시마대 문리대교수의 글에는 반핵과 평화를 염원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읽힌다.

또 시내 곳곳에 널려있는 위령탑으로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인 듯한 분위기를 비롯, 몸과 마음에 원폭 후유증을 안고 수처와 굴욕감으로 외부와 단절된 뒤 쾅쾅 숨어 지내는 사람들, 몸으로 겪은 원폭의 비참함



지난 6일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67주기를 맞아 평화기념공원에서 희생자 위령식이 열린 가운데 비둘기들이 날아오르고 있다.

을 알리며 핵무기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기형인 아이를 낳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 아이를 갖는 엄마 등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얘기는 원폭 투하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40여년 전의 기록이지만 원폭 투하라는 불행한 역사를 공유하는 지금의 독자, 특히 해방을 맞아 히로

시마와 나가사키를 잊어버린 한국의 독자들에게 각별한 울림을 준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기지의 오키나와를 찾아 써내려간 ‘오키나와 노트’도 식민 지배와 친략 전쟁이라는 일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출판사 삼천리·각 권 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뻘한 듯한 신데렐라 스토리? 중요한 건 사랑

###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2’

E L 제임스 지음

‘엄마들을 위한 포르노’, ‘역사상 가장 짜릿한 소설’, ‘엄마를 위한 엔돌핀’ 등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출간된 지 세 달만인 7월 미국에서만 2100만부, 전 세계에서 3000만부가 팔리거나 베스트셀러다.

성인도서라며 비치하지 않기로 한 미국 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항의에 어쩔 수 없이 들여놓기까지 했고 영국에서 ‘다빈치 코드’와 ‘해리포터 시리즈’를 제치고 가장 빠른 시간에 100만부 판매를 달성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영국 여성 작가 E L 제임스의 로맨스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대학 졸업을 앞둔 21살 여대생이



잘생긴 27살의 억만장자 청년 크리스천 그레이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다. 뻘한 듯한 신데렐라 스토리, 딱 ‘킬링타임 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반적 ‘할리우드 로맨스’와 다르다면 SM(사디즘-마조히즘) 등 노골적이고 반복적 성에 묘사, 하지만 성에 기술도 ‘야동’에 견주면 여전히 광범하고 맛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열광했다.

‘변태’지만 잘 생기고 바흐가 편곡한 협주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고상한 능력, 보고 싶다고 하면 제트기 타고 달려오는 돈까지 많은 남자 주인공과 평범한 여성의 사랑 때문만은 아닌 듯한다. 필가.

〈시공사·각권 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 외교는 13세기 베네치아에서 시작됐다

### ‘부의 도시, 베네치아’

로저 크롤리 지음

‘부의 도시, 베네치아’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한 베네치아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지중해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저자 로저 크롤리는 ‘500년 무역 대국’이라는 부제에 맞춰 탄탄한 사료 분석을 바탕으로 베네치아의 흥성을 다뤘다.

저자는 책을 기하·상승·쇠퇴 등 3부로 나눠 작은 도시국가였던 베네치아 공화국이 십자군 원정 등의 기회를 활용해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지구상 가장 부유한 국가로 기록됐던 전성기와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을 받아 쇠퇴하기까지를 온전하게 담았다.



저자는 특히 열악한 지리적 환경과 불리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상인 정신에 입각한 합성력, ‘현대 외교는 13세기 베네치아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탁월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무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점에 주목해 베네치아 역사를 풀어내었다.

수입과 수익을 치밀하게 분석, 이윤을 추구했던 베네치아 상인들의 모습,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이슬람권과 교황간 종교적 갈등 관계에서도 이윤을 추구했던 빛나는 외교적 싸움 등을 세밀하게 그리면서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세상·2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시인에게 사랑이란

## 우리에게 직업이란

## 그는 어떻게 시대와 역사를 움직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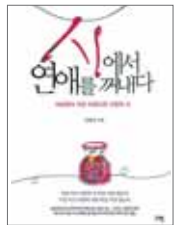
### ‘시에서 연애를 꺼내다’

민용태 지음

‘시인치고 낭만주의자 아닌 시인 있는가’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가 내놓은 ‘시에서 연애를 꺼내다’는 ‘사랑의 시’를 주제로 국내외 시인 12명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면서 풀어낸 에세이다. 3부로 나눠 스페인·중남미 시인들의 사랑 시를 다루면서 서정주·김남조·오세영 등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시인치고 사랑의 시인 아닌 시인 있는가”라는 저자의 말처럼 시와 함



께 전하는 시인들의 연애담이 재미있게 읽힌다. 누구나 하나씩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어 쉽게 공감할 수 있는데다, 만나고 헤어지는 게 쉽게 이뤄지는 요즘 시대의 ‘인스턴트식’ 사랑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제공한다.

자신이 직접 쓴 사랑 시도 전하면서 시가 탄생하게 된 스토리도 풀이 내 감상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다. 〈고즈윈·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판타스틱한 세상의...’

리처드 포드 엮음

이구백(20대 90%는 백수), 장미족(장기미취업 졸업생), 삼일절(취업은 30대 초반이면 끝) 등 ‘판타스틱한 세상의 개같은 나의 일’은 경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신조어 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시기, 일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을 한 데 모아 엮어냈다.

책을 엮은 폴리처상 수상작가 리처드 포드는 서문에서 “정시에 출근하고 일을 끝내야 하며 일거리를 집

에 가져가고 어떻게든 고용돼야 하



며 때로는 해고되고 승진하거나 좌천당하며 구조조정당해서 집에 보내지고 때로는 언더리가 나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지만 돈벌이를 해야 하는 복잡하고 곤혹스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다양한 직업군의 이야기가 존치며, 주도 디아스 등 32명의 단편소설을 통해 생생하게 담겨있다.

〈홍시·1만3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

호사카 마사야스 지음

도조 히데키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의 요직을 거쳐 수상까지 오른 전형적인 ‘정치군인’이었다. 1941년 진주만 폭격 이후 확대된 전쟁을 주도한 그는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교수형 판결을 받고 1948년 12월 처형됐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일본 전후 세대에 ‘불편하고 역겨운 인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위한 전쟁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급 전범 등 일본 군부의 인사 4000여명을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150여권의 책을 저술, 일본의 손꼽히는 논픽션 작가로 알려진 호사카 마사야스의 ‘도조 히데



키와 천황의 시대’가 출간됐다.

책은 퇴역 군인, 관료, 전·인척, 후손 등을 6년간 심층 취재하고 도조가 재임과 구치소 수감 때 쓴 메모, 일기 등을 세심히 분석해 도조 히데키를 복원해낸 평전이다.

저자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 무지했고, 국제 법규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국가를 병영으로 바꾸는 것을 신념으로 여겼던, 20세기 각국의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보잘 것 없는 인물이었던 그가 왜 시대와 역사를 움직였던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 도조 히데키를 일본의 군사적·정치적·정신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자, 근대 일본의 필연적 산물로 파악한다.

〈페이퍼 로드·3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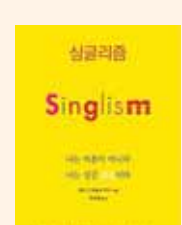
## 어린이 책꽂이

▲왜 열대는 죽음이 땅이 되었나=미국 탐사보도 전문가인 크리스천 퍼렌티가 기후변화가 지구 곳곳에서 야기하고 있는 갈등, 전쟁, 이민과 배척, 기아와 죽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저자는 기후변화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중위도 지역 열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흔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미지북스·1만9000원〉

▲역사의 증인 제일... 조선인=세인 서경식 도쿄 게이자이대 교수가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 ‘제일 조선인’의 고단한 삶을 풀어냈다. 제일 조선인이 경계인으로 내몰린 인과 관계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면서 애써 어두운 과거를 되만하려고 했던 한국 독자들에게도 뼈아픈 깨달음을 전달한다. 〈문비·1만4000원〉

▲삼국지 여인천하=삼국지에 등장한 수십 여명의 여인을 전면에 내세운 책으로, 난세 속에서 드러나는 영웅과 여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양이는 철저한 사료에 객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난세에 이슬처럼 사라져간 여인들’을 비롯, ‘구름에 달 가듯 서로에게 끌리는 영웅과 미녀’, ‘불행의 씨앗으로 전락한 여인들의 사랑과 전쟁’ 등으로 나눠 삼국시대의 러브스토리와 여인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냈다. 〈비즈니스맵·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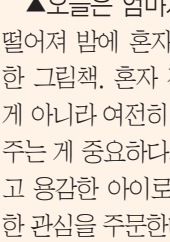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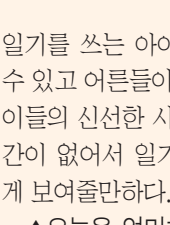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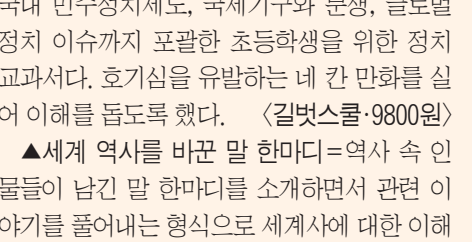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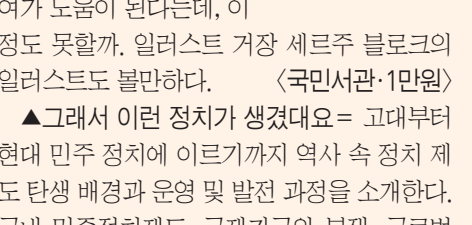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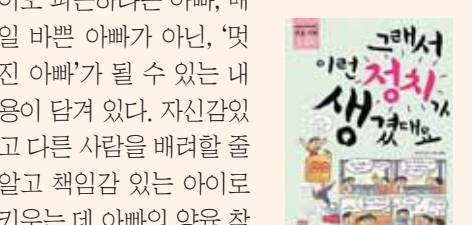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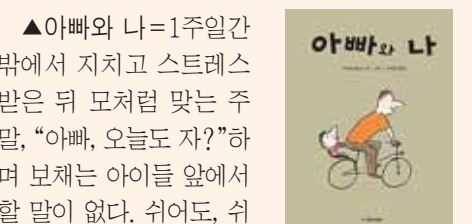
▲참요, 시대의 징후를 노래하다=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사강목’ 등 우리 문헌에 등장하는 참요 120여편을 모아 엮었다. 참요는 도합사상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짧고 간결한 노래로, ‘서동요’부터 백제의 멸망을 암시한 ‘백제월봉요’, 조선의 건국을 암시한 ‘목자요’, 구한말 민중의 불안한 심리를 담은 ‘청포장사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요에 대한 소개와 해설을 재미있게 풀었다. 〈한일미디어·2만5000원〉

▲사막에서 연어낚시=영국작가 폴 토데이의 데뷔작으로 음모가 판치는 정치 중심부를 비꼬는 유쾌한 정치 풍자 코미디 소설이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위기에 처한 권력이 얼마나 참의적인 일을 찾아 유권자를 다독이는지 비교하면서 말도 안되는 발상이 그럴듯하게 뿌리내리는 과정이 재미있게 읽힌다. 〈마시멜로·1만3800원〉

▲싱글리즘=싱글족을 괘시하는 세대는 연연히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초빙 교수인 벨라 드과울로 박사가 방대한 연구 자료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싱글인 남녀를 폄하하는 시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저자는 싱글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싱글리즘(Singlism)’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별이나 인종, 외모 차별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나·1만4000원〉



를 돕고 있다. 카이사르, 정기조간, 갈릴레이 등 세계 역사상 중요한 12명을 다루면서 ‘세계사 톨보기’, ‘알송달송 지식 사전’ 등의 코너도 마련해 다양한 역사 정보를 소개한다. 〈해와나무·1만1000원〉

▲놀고 싶다=안산 상록초교 교사인 이영근씨가 10년 동안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일기를 모아 엮어냈다. 몇 줄 밖에 안되는 내용인데도 일기를 쓰는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고 어른들이 놓치고 살아온 삶에 대한 아이들의 신선한 시각도 드러난다.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일기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만하다. 〈우리교육·8500원〉

▲오늘은 엄마차레=난생 처음 엄마 아빠와 떨어져 밤에 혼자 잠을 자게 되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혼자 잔다고 해서 부모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세심한 관심을 주문한다. 〈책과 콩나무·1만1000원〉